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3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숫자 3을 이용한 한국의 시각적 표현 연구

-부작을 응용한 한국적 표현-

디자인학과 정보디자인전공

박 선 미

2004

숫자 3을 이용한 한국의 시각적 표현 연구

- 부작을 응용한 한국적 표현 -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1월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정보디자인전공 박 선 미

박 선 미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이 영 희 _____

심사위원 장 동 훈 _____

이 은 숙 _____

김 수 정 _____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목 차

논문 개요 ····· vi
1. 서 론 ····· 1
1.1. 연구의 목적 ····· 1
1.2. 연구의 방법 ····· 2
1.3. 연구의 범위 ····· 3
2. 삼(三)의 의미(意味) ····· 4
2.1. 숫자 3의 의미(意味) ····· 4
2.2. 한국에서의 숫자 3 ····· 5
2.2.1. 삼신(三神) ····· 5
2.2.2. 삼월삼일(삼짇날) ····· 7
2.2.3. 삼재(三才), 삼성(三聲) ····· 8
2.2.4. 삼한(三韓) ····· 8
2.3. 불교에서의 숫자 3 ····· 8
2.3.1. 삼보(三寶) ····· 8
2.3.2. 삼계(三界) ····· 9
2.3.3. 삼세(三世) ····· 9
2.3.4. 삼불(三佛), 삼신(三身) ····· 9
2.3.5. 삼덕(三德) ····· 10
2.3.6. 삼존불(三尊佛) ····· 10
2.3.7. 삼문(三門), 삼부(三部) ····· 11
2.4. 유교에서의 숫자 3 ····· 11
2.4.1. 삼현일장(三顯一藏) ····· 11
2.4.2. 한국건축(韓國建築) ····· 11
2.5. 도교에서의 숫자 3 ····· 12
2.6. 기타에서의 숫자 3 ····· 12
2.6.1. 삼성(三聖) ····· 12
2.6.2. 삼부(三府), 삼권(三權) ····· 13
2.6.3. 삼단논법(三段論法) ····· 13
2.6.4. 삼원색(三原色) ····· 13
2.6.5. 제대(臍帶, 탯줄) ····· 13
2.6.6. 가위· 바위 · 보 ····· 14
3. 삼(三)의 상징적인 의미 ····· 14

3.1. 숫자의 상징성(象徵性) ····· 14
3.2. 숫자 3의 상징적(象徵的) 원의(原義) ····· 16
4. 고대(古代) 미술에서의 숫자 3 ····· 17
4.1. 강서 삼묘(三墓) ····· 17
4.2. 삼회장(三回裝) 저고리 ····· 18
4.3. 삼작(三作) 노리개 ····· 19
4.4. 사찰(寺刹) 삼문(三門) ····· 20
4.5. 삼족오(三足烏) ····· 20
4.6. 솥 ····· 21
4.7. 삼태극(三太極) ····· 22
4.8. 솟대 ····· 22
4.9. 삼지창 ····· 23
4.10. 부작(符作), 부적(符籍) ····· 23
5. 현대 미술에서의 숫자 3 ····· 25
5.1. 삼원색(三原色)의 바탕을 둔 신조형주의(新造形主義) ····· 25
5.2. 삼무(三無)정신이 스며 있는 제주 미술(濟州 美術) ····· 30
5.3. 기업이미지로 표현된 숫자 3 ····· 33
5.3.1. CJ (제일제당) ····· 33
5.3.2. 삼보(三寶) 컴퓨터(TG) ····· 35
5.3.3. 삼양식품(三養食品) ····· 36
6. 작품 제작 및 표현 연구 ····· 38
6.1. 작품 디자인의 컨셉 ····· 38
6.2. 작품 설명 ····· 39
6.2.1. 작품 1 : 삼족오(三足烏) ····· 39
6.2.2. 작품 2 : 솟대 ····· 41
6.2.3. 작품 3 : 화투(花鬪) ····· 43
6.2.4. 작품 4 : 삼두일족응(三頭一足應) ····· 45
6.2.5. 작품 5 : 삼작(三作) 노리개 ····· 47
6.2.6. 작품 6 : 외눈박이 삼물고기 부작 ····· 49
6.2.7. 작품 7 : 삼회장(三回裝) 저고리 ····· 51
6.2.8. 작품 8 : 비천선인상(飛天仙人像) ····· 53
7. 맺는 말 ····· 55
참고 문헌 ····· 57
ABSTRACT ····· 59

그림 목차

그림 1 탯줄(제대) ····· 14
그림 2 강서 삼묘 ····· 17
그림 3 삼회장(三回裝) 저고리 ····· 19
그림 4 삼작(三作)노리개 ····· 19
그림 5 범어사 일주문 ····· 20
그림 6 삼족오(三足烏) ····· 21
그림 7 청동 솥 ····· 21
그림 8 삼태극(三太極) ····· 22
그림 9 솟대 ····· 23
그림 10 삼지창 ····· 23
그림 11 한눈박이 세 마리 물고기 부적(符籍) ····· 24
그림 12 몬드리안.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 26
그림 13 몬드리안. Broadway Boogie Woogie. ····· 29
그림 14 강부언. 삼무일기 1. 목판에 수묵채색. 1999. ····· 31
그림 15 강부언. 삼무일기 2. 목판에 수묵채색. 1999. ····· 32
그림 16 (주) C J 로고 ····· 34
그림 17 삼보컴퓨터 로고 ····· 36
그림 18 삼양식품 로고 ····· 37
그림 19 작품 1 : 삼족오(三足烏) ····· 40
그림 20 작품 2 : 솟대 ····· 42
그림 21 작품 3 : 화투(花鬪) ····· 44
그림 22 작품 4 : 삼두일족응(三頭一足應) ····· 46
그림 23 작품 5 : 삼작(三作) 노리개 ····· 48
그림 24 작품 6 : 외눈박이 삼물고기 부작 ····· 50
그림 25 작품 7 : 삼회장(三回裝) 저고리 ····· 52
그림 26 작품 8 : 비천선인상(飛天仙人像) ····· 54

논 문 개 요

수학적(數學的)인 수량(數量)의 의미(意味)를 가지고 있는 숫자는 단순히 수학적(數學的)인 의미(意味)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성(民族性)과 함께 사회적(社會的), 문화적(文化的), 경제적(經濟的)인 의미가 부여되는 상징성(象徵性)의 의미를 내포(內包)하고 있다.

숫자가 수학적인 의미 뿐 만 아니라 상징적(象徵的)인 의미도 지니고 있음을 J.E. Cirlot 와 J.C. Cooper는 다음과 같이 지적(指摘)하고 있다.

In symbolism, numbers are not merely the expression of quantities, but idea-forces, each with a particular character of its own... The first ten numbers in the Greek system..are entities, archetypes and symbols. Numbers are not only quantities, but also symbolic qualities.

즉 숫자는 단순히 개수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의미 표현의 매체(媒體)인 말(word)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치 꽃말(language of flower)처럼 함축적(含蓄的)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象徵的)인 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알게 모르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숫자가 관여되어 있는 풍습(風習)과 관습(慣習), 그리고 여러 문헌, 그리고 예술적인 작품은 비교적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 3은 성(聖)스러움, 완전(完全)함, 최상(最上)임, 창조(創造)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종교, 신화, 전설, 민담 심지어는 속담에 까지 3이 자주 쓰이고 있다. 실례로 우리가 가위· 바위 · 보 놀이를 하더라도 3번해서 2번이긴 사람을 이겼다고 보고 전통적인 씨름 경기에도 삼판양승제(三判兩勝制)라는 제도를 쓰고 있는 데서 보더라도 오랜 기간 중에 우리 실생활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어렸을 때의 놀이에서 승패나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가 생기면 그것을 한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삼세번이라야만 끝나게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 삼(三)을 매우 중요시 해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불교 그리고 기타 상황에서 숫자 3이 갖는 핵심성(核心性)과 전체

성(全體性), 삼의 어의(語義)에서의 인간생명(人間生命)의 근원(根源) · 생식(生殖) · 생산(生産) · 신(神) · 신령(神靈)함, 숫자 3과 아침 · 개천(開天)은 서로 상통(相通)하는 의미(意味)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生命) · 생산(生産)의 근원신(根源神)이라는 무속적(巫俗的) 의미(意味)를 가지고 있는 삼(sam)이 숫자 3과 융합이 되었으며 우리민족의 전체성(全體性)이라는 개념을 갖게 된 것이다.

이처럼 3이라는 숫자는 세 개라는 수량적(數量的)인 의미 외에도 상징적(象徵的)인 의미를 내포하여 우리의 일상생활 특히 미술(美術)에도 상당한 영향(影響)을 주어 고대 미술에서도 삼회장(三回裝) 저고리, 삼작(三作) 노리개, 삼족오(三足烏), 삼태극(三太極), 솟대 등의 風俗과도 연관이 된 미술 작품들에도 기본적인 관념(觀念)으로 표현(表現)이 되고 있다. 이에 3이라는 숫자 개념(槪念)이 디자인이라는 표현방식(表現方式)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변천이 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현대 미술과 디자인에 적응이 되고 있는 실례(實例)를 찾아보아서 향후 적용되어 발전될 디자인에 관해 연구하고 작품제작을 의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숫자는 수학적(數學的)인 수량적(數量的) 의미(意味)뿐 만 아니라 상징적(象徵的)인 의미도 지니고 있어 의미 표현의 매체인 말(word)이며 마치 꽃말처럼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말이다.

특히 숫자를 이용하여 회화(繪畵)나 문학영역에 창작주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欲求)는 원시시대 이후 계속 승계(承繼)되어온 인간의 본성으로 북두칠성의 일정한 위치와 간격 및 숫자가 원시 동굴의 벽화로 되었고 이러한 수학의 질서 정연함에 귀속하게 하는 수학적인 우주관(宇宙觀)과 질서파괴 욕구 및 회화화 욕구는 부단히 인간의 예술전달욕구에 반영(反影)되어 왔다.

또한 기호의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과 같은 유행에서 숫자는 대부분 표음(表音)에 의한 임의로 만들어진 기호로서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징(象徵) 언어(言語)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숫자와 한글의 발음상의 유사성(類似性), 숫자의 상징성 등으로 기존의 음성대화를 대체하는 커뮤니케이션 약속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라비아 숫자 '8'은 하나의 상징이다.[1] 이 속에서 여덟이라는 기의(起義)와 비슷한 어떤 것도 없다. 단지 약속으로만 8모양을 여덟을 의미한다고 기호 사용자들이 동의(同議)한 것이다. 8을 회전시켜 ∞으로 만들면 무한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된다. 이 두 가지 기호는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약속(約束)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2]

---

1) Cora Linn Daniels & C.M. Stevens, ed. Encyclopia of Superstition, Folklore and the Occult Sciences of the World(Detroit: Gordon Press, 1971). p 1637.

2) 양리가(2000). 숫자메세지의 진화에 관한 연구. 서울디자인포럼학회 디자인 연구집 6(1). p 100-112.

그 중 3은 성(聖)스러움, 완전(完全)함, 최상(最上)임, 창조(創造)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종교(宗敎), 신화(神話), 전설(傳說), 민담(民譚) 심지어는 속담(俗談)에 까지도 3이 자주 쓰이고 있다.[3]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3은 특별한 숫자이다. 오랜 옛날부터 3은 길수(吉數) 또는 신성수(神聖數)라 하여 최상의 수로 여겨져 왔다.

실례(實例)로 우리가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더라도 3번해서 2번이긴 사람을 이겼다고 보고 전통적인 씨름 경기에도 삼판양승제(三判兩勝制)라는 제도를 쓰고 있는 데서 보더라도 오랜 기간 중에 우리 실생활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에 '3'이라는 숫자 개념(槪念)이 디자인이라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왔는지 먼저 살펴보고 향후 적용될 방향을 알아보고자 이 연구(硏究)를 시작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연구(硏究) 방법(方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의 개념(槪念)과 숫자가 갖는 상징성(象徵性) 등의 의미를 여러 문헌(文獻)을 통해 과거의 삼(三)의 개념과 현재 일상생활에서의 의미(意味) 등을 알아본다.

둘째, 고대(古代)의 미술에서 적용(適用)이 되어 온 삼(三)의 의미를 여러 문헌과 풍습, 관습, 종교, 미술 작품 등에서 확인하고 현대의 미술에서의 삼(三)의 영향력을 확인하여 각각의 적용된 함축적(含蓄的)인 의미와 그 영향력(影響力)을 비교 분석하여 본다.

셋째, 과거의 적용 되어온 삼(三)에 대한 함축적(含蓄的)인 의미와 상징

3) Gertrude Jobes, Dictionary of Mythology, Folklore and Symbols (New York : The Scarecrow Press, 1962) p. 1563.

성(象徵性)과 현재 응용이 되고 실제적인 실례(實例)를 통해 향후 적용되어 재가공(再加工)될 이미지를 한번 구성(構成)해 보고 이런 이미지가 실상 생활에 응용되어 가는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1.3.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문헌(文獻) 조사 위주로 자료를 수집하고 과거 미술에 있어서 삼(三)의 상징적인 의미가 적용되고 실례(實例)를 확인하고 현대에서 숫자 3의 디자인 적용이 된 실례들을 비교(比較), 분석(分析)을 하는 연구로 숫자 3의 적용이 된 미술 작품을 고대(古代)와 현대(現代)로 나누어서 수집하고 분석하였고 특히 현대에 적용이 된 실례들에서는 디자인의 형태 분석을 주로 하였다.

2. 삼(三)의 의미(意味)

2.1. 숫자 3의 의미(意味)

우리가 어렸을 때의 놀이에서 승패(勝敗)나 어떠한 결정(決定)을 내려야 할 경우가 생기면 그것을 한두 번만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삼세번이라야만 끝나게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 삼(三)을 매우 중요시해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4] 숫자는 단순히 수량(數量)만을 나타나는 수학적(數學的)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社會的)인 규약(規約)의 의미를 내포하는 상징적(象徵的)인 의미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3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옛날부터 행운(幸運)과 신성(神聖)함의 상징(象徵)으로 여겨졌고 나름대로의 특별한 의미(意味)를 지니고 있다.

'3'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1'과 '2'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은 하나의 수량(數量)을 말하지만 동시에 사물의 전체(全體)를 나타내기도 하며 태극(太極)을 나타내는 수이기도 하다. 음양(陰陽)의 이치를 보면 '1'은 아무런 다른 수와도 섞이지 않는 순양(純陽)의 수이다. 그리고 최초의 수이므로 '1'에서부터 모든 사물이 생겨난다는 탄생(誕生)의 뜻이 담겨져 있다.

'2'는 하나가 아닌 최초의 단위(單位)이자 최초의 음수(陰數)이며 순음(純陰)의 수이다. 음과 양, 하늘과 땅, 남과 여 등과 같이 상반된 두 가지 요소(要素)가 하나가 된다는 대립(對立)과 화합(和合)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앞에서 말한 '1'과 '2'가 결합(結合)하여 생겨난 수가 바로 '3'인 것이다. 즉 음양(陰陽)의 조화(造化)가 비로소 완벽(完璧)하게 이루어진 수가 바로 '3'이다. 따라서 '3'은 음양(陰陽)을 뜻하는 1과 2의 대립(對立)에 하나를 더 보탬으로써 완성(完成), 안정(安定), 조화(造化), 변화(變化)를 상징한다

---

4) 이상언(1995). 한국인의 수 개념 연구(1) -숫자 3에 대하여- . 한국민속학보 5. p114.

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완성(完成)이라는 의미는 짝수처럼 둘로 갈라지지 않고 원수(員數)인 1의 신성함을 파괴하지 않은 채 변화(變化)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3'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전체로서는 완성(完成)된 하나라는 강력한 상징(象徵)을 띠고 있다. 이러한 상징성은 3개의 다리가 달려 있는 청동솥이나 단군신화(檀君神話)에 나타난 수의 관념, 불교(佛敎) 그리고 민속적(民俗的)인 측면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2.2. 한국에서의 숫자 3

한국인(韓國人)들에게 있어서 숫자 3은 절대적인 성수(聖數)이다. 한국인은 고유의 조미료인 간장, 고추장 그리고 된장의 삼장으로 만든 음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의 삼시 세끼를 먹고 산다.

대통령의 내각회의 그리고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잡는 봉도 반드시 세 번을 두드린다. 또 국가적인 행사 때 만세도 삼창(三唱)을 한다. 술자리에서도 삼배(三盃)를 예사로 하며 한국 사람들이 좋아 하는 화투놀이의 일종인 고스톱에서도 세 명 이상이 모이면 시작하고 3점이 기본 점수이며 인쇄를 할 때도 삼 교정(矯正)을 거친 후 인쇄(印刷)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실생활에서 숫자 3이 연관된 일을 찾기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며 그 실례를 하나씩 살펴본다.

2.2.1. 삼신(三神)

우리나라 시조(始祖)로 일컬어지고 있는 단군신화(檀君神話)에는 환인(桓因), 환웅(桓雄), 환검(桓儉, 檀君王儉)의 삼신(三神)이 나온다. 환인(桓因)은 자기의 아들인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에 뜻을 둔 것을 알고는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인간 세상으로 내려 보냈다. 환웅(桓雄)은 인간들의 360여 가지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며 웅녀(熊女)와 혼인(婚姻)하여 단군(檀君)을 낳았다.[5)]

---

5) 이상언(1983). 한국 무(巫) 명칭(名稱)의 어의(語義). 한국민속학 16호.

백두산이나 묘향산을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천왕이 하늘로부터 내려 왔다고 하여 삼신산(三神山)이라고 하며 황해도 구월산(九月山)에는 삼성사(三聖祠)라는 삼신(三神)을 제사하는 곳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신선(神仙)이 살고 있다는 삼신산(三神山)이 있다. 중국 한(漢)나라의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史記)에 의하면 발해만 동쪽의 세 산에 신선(神仙)이 살고 있으며 불사락(不死樂)이 있다 하여 태시황(太始皇)은 이것을 구하려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보냈다는데 삼신산(三神山)은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州山)이다. 봉래산은 금강산이며 방장산은 지리산, 영주산은 한라산이라는 전설(傳說)이 있다고 한다.

제주도 제주읍에는 삼성혈(三姓穴)이 있는 데 태고대(太古代)에 양을방, 고을방, 부을방의 삼신(三神)이 이 웅덩이에서 태어나 천사가 데려온 세 처녀를 배필로 삼아 살면서 탐라국(耽羅國)을 세워 제주도의 개조(開祖)가 되었다고 하는 데 이들을 모시는 신사(神祠)가 삼성사(三聖祠)이다.

삼신(三神) 할머니는 이러한 의미(意味)로 국가의 탄생(誕生)이라는 국조(國祖) 신화와 연관이 있다. 특히 삼신(三神) 자손(子孫)이라는 말에서 우리민족은 이 세신의 자손이라는 뜻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런 개념이 후에 아이를 낳는 다는 여성적(女性的)인 의미가 확대 해석되고 무속신화(巫俗神話)와 민속신앙(民俗信仰)으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삼신(三神) 할머니가 인간의 탄생(誕生)으로 점지되는 신령(神靈)으로 바뀌어 섬겨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아기를 낳게 되면 삼신(三神) 할머니에게 산모와 아기의 건강(健康)을 빌기 위해 삼신상을 차린다. 삼신상은 보통 안방 윗목에 차리는 데 쌀밥과 미역국을 한 그릇 혹은 세 그릇씩 올린다. 출산 전에 해산 기미가 보이면 미리 삼신상을 차리는 데 상에는 미역과 쌀, 정화수(井華水)를 올리고 두 손바닥을 마주 대고 비비면서 빨리 순산해 달라고 기원(祈願)하였다.

2.2.2. 삼월삼일(삼짇날)

음력 3월 3일은 상사(上巳)나 원사(元巳), 또는 상제(上除)나 중삼일(重三日)이라고도 한다. 삼짇날은 삼(三)의 양(陽)이 겹친다는 의미이다. 최남선에 의하면 삼진은 삼일의 자음(字音)에서 변질되어 파생된 것이며 상사(上巳)는 삼월의 첫 뱀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6)]

가을에 중국의 양자강 이남인 강남땅으로 갔던 제비가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때로 알려져 있으나 흥부전에서의 3월 3일은 그와는 달리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날로 보인다. 3월 3일에 날아 온 제비가 가져다 준 박씨에서 박이 열리고 그 박 속에서는 온갖 재물(財物)과 양귀비(楊貴妃)가 나와서 흥부를 행복하게 만들며 똑같이 3월 3일에 되돌아온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에서 박이 열리니 그 박으로부터 많은 사람과 똥이 쏟아져 나와서는 놀부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7)]

삼월 삼일을 우리나라말로는 삼짇날, 또는 삼질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는 이날이 신라(新羅) 때부터 있었는데[8)] 이날 사람들은 동류천(東流川)에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교외(郊外)에 나가 하루를 즐기며 가정에서는 진달래꽃을 찹쌀가루에 넣어 화전(花煎)과 화면(火麵)을 만들어 시식(時食)으로 먹고 조상의 사당에 올렸다고 한다. 경북 지방에서는 이 날 뱀을 보면 운수(運輸)가 좋다고 하고 또 흰나비를 보면 그 해 상(喪)을 당하는 등의 운이 없다고 하며 호랑나비나 노랑나비를 보면 운이 길(吉)하다고 한다.[9)]

이 날 장을 담그면 맛이 좋다고 하며 집안 수리도 한다. 아울러 농경제(農耕祭)를 행함으로써 풍년(豊年)을 기원하기도 한다. 전국각처에서는 한량들이 모여 편을 짜고 활쏘기를 하기도 하며 닭싸움을 즐기기도 한다. 사내아이들은 물이 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피리를 만들어 불면서 놀이를 즐기고 계집아이들은 대나무쪽에다 풀을 뜯어 붙여 각시인형을 만들어 각시놀음을 즐기기도 하였다.

---

6) 인터넷 http://www.sesistory.pe.kr/index2.html
7) 이상언(1995). 한국인의 수 개념 연구. 한국민속학보 5. p. 116.
8) 韓國學大百科事典 乙酉文化社 1972 1권 p 666.
9) 瑞山民俗誌 上, 경희대 민속학 연구소 1987, p. 444.

2.2.3. 삼재(三才), 삼성(三聲)

우리의 국어(國語)인 한글의 모음(母音)은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의 삼재(三才 일명 삼극(三極))를 기본으로 만들어졌다. 삼재(三才)는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역경(易經)에서 말하고 있다.

한글의 글자는 초성(初聲) · 중성(中聲) · 종성(終聲)의 삼성(三聲)으로 이루어진다.

관상(觀相)에서는 이마, 코와 턱을 가리켜서 삼재(三才)라고 한다.

2.2.4. 삼한(三韓)

상고(上古) 시대에 한반도(韓半島) 남부에 자리 잡고 있던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의 세 부족사회가 삼한(三韓)이다. 삼한(三韓) 지역인 충청 남·북도를 합쳐서 삼한(三韓), 또는 삼도(三道)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삼한(三韓)이라는 호칭은 바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용어(用語)라고 할 수 있다. 고려대(高麗代)에 사용된 화폐(貨幣)로 삼한통보(三韓通寶)와 삼한중보(三韓重寶)라는 철전(鐵錢)이 있었으며 고려말엽에는 조운흘이 신라와 고려의 유명한 시를 인별, 어수별로 분류하여 편찬한 삼한시귀감(三韓詩龜鑑)이 있었고 조선(朝鮮) 철종(哲宗) 9년(1858)에 오경석이 금석문(金石文)을 연대(年代), 필자(筆者) 등으로 고증하여 수록한 삼한금석록(三韓金石錄)이 있었는데 이들에서 삼한(三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2.3. 불교에서의 숫자 3[10)]

2.3.1. 삼보(三寶)

불교(佛敎)에서의 삼보(三寶)는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를 일컫는다. 보(寶)란 귀중하다는 뜻으로 불보(佛寶)는 여러 부처님네 - 깨달

10) 이상언(1995). 한국인의 수 개념 연구. 한국민속학보 5. p 132-139.

았다는 뜻, 법보(法寶)는 부처님이 말씀한 교법 - 모범 된다는 뜻이며 승보(僧寶)는 교법대로 수행하는 이 - 화합(和合)이라는 뜻이다.

이 삼보(三寶)에 귀의(歸依)하는 것이 삼귀의(三歸依)인데 귀의라 함은 귀순(歸順)하여 신뢰(信賴)함을 말한다.

2.3.2. 삼계(三界)

삼계(三界)는 생사의 유전(流轉)이 쉴 새 없는 미계(迷界)를 셋으로 분류하여 삼유(三有)라고도 하며 욕계(欲界) · 색계(色界) · 무색계(無色界), 천계(天界) · 지계(地界) · 인계(人界)나 불계(佛界) · 상생계(象生界) · 심계(心界) 등을 가리킨다.

2.3.3. 삼세(三世)

과거· 현재· 미래, 전세(前世)· 현세(現世)· 내세(來世) 또는 전제(前際)· 중제(中祭)· 후제(後祭)를 삼세(三世)라고 한다. 세(世)는 격별(隔別) · 천류(遷流)의 뜻으로 현상계의 사물은 잠시도 정지하지 않고 생기면 반드시 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물의 천류(賤流)하는 위에 삼세를 가(假)로 세운 것으로서 현재는 어떤 법이 생겨서 작용하고 있는 동안이며 과거는 법이 멸했거나 또 작용을 그친 것, 미래는 법이 아직 나지 않고 작용을 하지 않은 것이다. 과거세 · 현재세 · 미래세의 각각의 천불(千佛)을 삼천불(三千佛)이라고 한다.

2.3.4. 삼불(三佛), 삼신(三身)

서방정상(西方淨上)의 주불(主佛)인 아미타불, 사바세계의 교주(敎主)인 석가모니불, 염불하는 중생의 왕생(往生)이 확실함을 보증하여 행자(行者)를 보호하는 여러 부처님네인 제불(諸佛)이 삼불(三佛)이다.

불신(佛身)을 그 성질상으로 보아 셋으로 나눈 법신(法身) · 보신(報身)

· 응신(應身)을 삼신(三身)이라고 하며 법신(法身)의 법은 영겁토록 변치 않는 만유의 본체(本體), 신은 적(積聚)의 뜻으로 본체에 인격적 의의(意義)를 붙여 법신(法身)이라고 하니 빛깔도 형상도 없는 이불(理佛)이라 할 수 있다. 보신(報身)은 인(因)에 따라서 나타난 불신(佛身)인 아미타불과 같으며 곧 보살(菩薩) 위(位)의 곤란한 수행을 견디고 정진 노력한 결과로 얻은 영구성이 있는 유형(有形)의 불신(佛身)이라고 볼 수 있다. 보신불(報身佛)을 보지 못하는 이를 제도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불신(佛身)으로 역사적 존재를 인정하는 석가모니가 바로 응신(應身)이다.

2.3.5. 삼덕(三德)

삼덕(三德)은 불과(佛果)의 공덕을 나눈 것으로서 지덕(知德) · 단덕(斷德) · 은덕(恩德)이다. 지덕(知德)은 부처님의 평등한 지혜(智慧)로 일체의 것을 다 아는 덕, 단덕(斷德)은 남김이 없는 덕, 은덕(恩德)은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려는 서원(誓願)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구하여 해탈케 하는 덕이다.

그리고 열반(涅槃)을 얻은 이에게 갖춘 덕을 나눈 법신덕(法身德) · 반야덕(般若德) · 해탈덕(解脫德)이 바로 삼덕(三德)이다. 법신덕은 부처님의 본체로서 미계(迷界)의 고과(苦果)를 벗어나서 얻은 상주 불멸하는 과덕(果德)이다. 반야덕은 지혜라 번역하며 만유의 실상을 아는 진실한 지혜(智慧)이고 해탈덕은 지혜에 의하여 참다운 자유(自由)를 얻는 것이다.

2.3.6. 삼존불(三尊佛)

사찰의 대웅보전 중앙에 안치한 부처와 그를 좌우에서 받들고 있는 두 협시(脇侍)를 함께 이르는 말이 삼존불(三尊佛)이며 미륵(彌勒) 삼존(三尊) · 석가(釋迦) 삼존(三尊) · 약사(藥師) 삼존(三尊)이 있다. 아미타불(阿彌陀佛)은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이 협시(挾侍)하고 있으며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은 문수보살(文殊菩薩)과 보현

보살(普賢菩薩)이, 약사불은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이 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 인바위(印岳)에 백제 말기의 마애삼존불상(磨崖三尊佛像)이 있고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동에 신라 통일 초기의 삼존석굴(三尊石窟)이 있다.

2.3.7. 삼문(三門), 삼부(三部)

사찰(伺察)의 본당 앞에 있는 다락문, 공문(空門) · 무상문(無相門) · 무작문(無作門) 등의 해탈문(解脫門)을 비겨서 삼문(三門)이라고 부른다.

7세기 후반기 흥했던 불교의 한 지파인 밀교(密敎)의 불부(佛部) · 연화부(蓮華部) · 금강부(金剛部)를 삼부(三部)라고 한다.

2.4. 유교에서의 숫자 3

2.4.1. 삼현일장(三顯一藏)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한다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하루 24시간 중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시간은 잠을 자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밤이 되면 수면을 취하는 것은 정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음날의 활동을 위한 힘을 비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삼현일장(三顯一藏)이라고 한다. 세 개는 드러내고 한개는 감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역의 이치이다.

2.4.2. 한국건축(韓國建築)

한국의 건축에 있어 방의 크기를 정하는 수치가 3×5, 3×6, 3×7, 3×8등으로 3이라는 숫자가 그 기본을 이루는 데 이것도 주역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즉 3이라는 숫자는 태극, 음, 양을 상징하고 세상 만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여기에는 태극과 인간과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음양의 현상세계와 태극이라는 형이상의 세계가 3이라는 숫자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방이지만 그 안에 태극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큰 우주가 있다고 볼 수 있다.[11)]

2.5. 도교에서의 숫자 3

사물은 유(有)라고 할 수 있지만 도(道)는 사물이 아니므로 무(無)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道)는 천지만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유(有)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무(無)는 도(道)의 체(體)이고 유(有)는 도(道)의 용(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자(老子)는 유무(有無)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천지만물은 유(有)에서 생기고 유(有)는 무(無)에서 생긴다.
도(道)에서 하나가 생기고 하나에서 둘이 생기고 둘에서 셋이 생기고 셋에서 만물이 생긴다. 만물은 저마다 음(陰)을 구비하고 양(陽)을 함유하는데 이 음양(陰陽) 이기(二氣)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로움이 생긴다.

2.6. 기타에서의 숫자 3

2.6.1. 삼성(三聖)

세계적인 세 성인(聖人) 곧 석가 · 공자 · 예수를 삼성(三聖)이라고 한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세 성인인 소크라테스 ·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도 삼성(三聖)이라고 불린다.

---

11) 이은숙(2003). 한국디자인의 형이상적 특성과 새로운 패러다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p 146-150.

2.6.2. 삼부(三府), 삼권(三權)

국가의 작용은 입법부(立法府) · 사법부(司法府) · 행정부(行政府)의 3부로 나누어진다. 국가 권력을 서로 독립한 입법 · 사법 · 행정의 삼권(三權)으로 분리하여 산호의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을 유지시킴으로써 정치적인 공평함을 기하려는 국가 조직상의 원칙을 삼권분립(三權分立)이라고 한다.

2.6.3. 삼단논법(三段論法)

형식 논리학(論理學)에 있어서의 간접 추리의 한 형식이 삼단논법(三段論法)인데 대전제 · 소전제의 두 명제(命題)로부터 새로운 명제인 단안(斷案)을 내리는 추리 방식이다.

2.6.4. 삼원색(三原色)

그림에서 자연색의 기본이 되는 붉은 색 · 푸른색 · 노란 색이 삼원색(三原色)이며 빛에서의 적색 · 녹색 · 청색도 3원색이다.
이 삼원색은 현대에서 몬드리안에 의해서 신조형주의 근간이 된다.

2.6.5. 제대(臍帶, 탯줄)

어머니와 모체 자궁안의 태아를 잇는 탯줄은 한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삶은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생명의 근원 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두 개의 동맥과 한 개의 정맥으로 삼륜상(三輪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와 아이가 하나임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탯줄의 흔적인 배꼽은 인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根源)으로 인식되어 민간에서는 신성시하는 경향이 강하다.[12)]

---

12)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집위원회(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p 318.

그림 1 탯줄(제대) - 두 개의 동맥과 한 개의 정맥이 보인다.

2.6.6. 가위 · 바위 · 보

가위는 사람을, 바위는 땅을, 보는 하늘을 상징(象徵)한다는 우리 민족의 고대 철학이 담겨져 있다. 여기서 사람은 땅을 이길 수 없고 하늘은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땅은 하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 세 개의 존재가 서로 얽히고 설켜 공존(共存)해 감으로써 하늘, 땅과 사람의 조화(造化)됨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三權分立)과 삼위일체(三位一體)도 모두 가위, 바위, 보의 이치(理致)를 정치, 종교, 생활에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종교(宗敎), 학문(學問), 그리고 풍습(風習), 실생활(實生活)에서 숫자 3과 관련 것은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음을 알 수가 있었고 그 이념적(理念的)인 중요성도 상당히 큰 것으로 숫자 3이라는 의미보다는 삼(三)이라는 상징성(象徵性)을 가미한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3. 삼(三)의 상징적인 의미

3.1. 숫자의 상징성(象徵性)

숫자가 수학적(數學的)인 의미 뿐 만 아니라 상징적(象徵的)인 의미도 지니고 있음을 J.E. Cirlot 와 J.C. Cooper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In symbolism, numbers are not merely the expression of quantities, but idea-forces, each with a particular character of its own... The first ten numbers in the Greek system..are entities, archetypes and symbols.[13)]

Numbers are not only quantities, but also symbolic qualities.[14)]

숫자는 단순히 개수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의미 표현의 매체인 말(word)이며, 마치 꽃말(language of flower)처럼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말이라는 것이다.[15)]

수에 대한 종교철학적인 상징적 해석은 만물의 근원(根源)을 수로 보고 수에서 우주(宇宙) 조화(造化)의 신비를 찾으려 하였던 Pythagoras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Plato는 우주의 조화가 수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수와 도덕(道德)을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16)] 또한 성경에서도 숫자가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The symbolic meaning of Numbers in Holy Scripture deserves more study and attention than it has received in recent times..... From an induction of particular it would appear that 3 is an arithmetical symbol of what is Divine and 4 of what is Created. 3 +4 = 7 is the union of the two ; hence signifying Rest, a Saddath : 3× 4 = 12 is the bleding and indwelling of what is Divine with what is created.

숫자가 보편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 생각하는 사

---

13) J. E. Cirlot, A Dictionary of Symbols (New York : Philosophical Library, 1962), p. 220.

14) J. C. Cooper,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London: Thames and Hudson, 1978), p. 113.

15) 고정석. Macbeth의 상징 연구 - 숫자3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 . 영어영문학 1988 ; 34(1) : 121-140.

16) Douglas Brooks, Number and pattern in the Eighteenth Century Novel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73), p. 4.

람들은 한결같이 3이 함축(含蓄)하고 있는 의미가 매우 다양(多樣)하고 풍부(豊富)하며 신비(神秘)롭기 조차 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The power of three is universal.[17)]
The dynamism and symbolic richness of the number three is so exceptional that it cannot be over-emphasized.[18)]
Three or the triad contains the mystery of mysteries.[19)]

그 중 3은 성(聖)스러움, 완전(完全)함, 최상(最上)임, 창조(創造) 등의 의미를 함축(含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종교, 신화, 전설, 민담 심지어는 속담에 까지 3이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3.2. 숫자 3의 상징적(象徵的) 원의(原義)

지금은 소음공해라 하여 행해지지 않고 있으나 서울역에서 열차가 출발할 때는 반드시 기적을 세 번 울리고 출발했고 북한으로 향하는 쌀 수송선도 고동을 세 번 울리고 동해항을 떠났다. 여기에서 '3'은 활동의 시작(始作)임을 뜻한다.

옛날 우리나라 큰 도시에서는 야간에 통행금지를 알리는 인경종과 새벽에는 이를 해제하는 바라종을 쳤었다. 매일 밤 2경인 오후 10시에 스물여덟 번의 쇠 종을 치는 것인 인경이고 새벽 5경인 오전 4시에 서른 세 번 치는 것이 바라였다.

바라로부터 하루의 생활이 시작되었으며 섣달 그믐날 자정인 3경 부터는 삼백예순날의 한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개천절(開天節)인 10월 3일은

17) J. C. Cooper,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London: Thames and Hudson, 1978), p. 114.
18) J. E. Cirlot, A Dictionary of Symbols (New York : Philosophical Library, 1962), p. 226.
19) Cora Linn Daniels & C.M. Stevens, ed. Encyclopia of Superstition, Folklore and the Occult Sciences of the World(Detroit: Gordon Press, 1971), p. 1637.

우리나라가 개벽(開闢)되어 처음으로 시작이 된 날이다. 그런데 각각의 이 때에 쇠 종을 서른 세 번 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3'이라는 숫자의 중요성(重要性)이 암시(暗示)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른셋은 삼(三)이 겹친 것이며 숫자 '3'은 생명의 탄생(誕生), 또는 생명의 시작(始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불교 그리고 기타 상황에서 숫자 3이 갖는 핵심성(核心性)과 전체성(全體性), 삼(三)의 어의(語義)에서의 인간생명(人間生命)의 근원(根源) · 생식(生殖) · 생산(生産) · 신(神) · 신령(神靈)함, 그리고 숫자 '3'과 아침 · 개천(開天)은 서로 상통(相通)하는 의미(意味)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생명(生命) · 생산(生産)의 근원신(根源神)이라는 무속적(巫俗的) 의미(意味)를 가지고 있는 삼(sam)이 숫자 '3'과 융합(融合)이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전체성(全體性)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된 것이다.

4. 고대(古代) 미술에서의 숫자 3

4.1. 강서 삼묘(三墓)

그림 2 3개의 표주막을 엎어 놓은 듯한 강서 삼묘 광경

강서 삼묘는 강서 대묘, 중묘, 소묘 세 무덤이 함께 있다. 북한 남포시 강서구역 삼묘리에 위치하는 데 동족으로 2 ㎞를 가면 덕흥리 고분이, 서쪽으로 6 ㎞에는 수산리 벽화 고분이 있다. 강서 삼묘는 경주 오릉만큼이나 크며 작은 무덤이 둘레 120m 높이 9m이며 큰 무덤은 둘레 200m에 높이 14m 나 되어 멀리서 볼 때도 확인이 된다. 60여기의 벽화 고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벽화를 가진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묘에는 벽화가 없지만 고구려 건축술을 알 수 있는 무덤으로 벽면에는 지금도 종이 한 장도 끼울 틈이 없고 네 벽의 모서리까지도 5각형 구석돌에 의해 서로 꽉 물려 있다.

4.2. 삼회장(三回裝) 저고리

삼회장(三回裝) 저고리는 깃 · 고름 · 곁막이 · 소매 끝동을 저고리의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한 저고리를 말한다. 저고리에 선을 대는 것은 저고리의 단순함을 보완해 주면 색감(色感)의 조화(造化)를 이루어 산뜻한 감각(感覺)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회장(回裝)의 색깔은 자주색이나 남색을 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은 남색치마에 황색 삼회장(三回裝)저고리를 입은 모습인데 남색과 황색을 으뜸가는 색으로 여겨 이는 조선시대 부인의 예복으로서 경사스러운 날에 착용하였다. 남치마의 풍부한 선과 황색 삼회장(三回裝)저고리는 품위(品位)를 느끼게 한다. 장식용으로 노리개를 고름에 걸어 늘어뜨려 더욱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그림 3 삼회장(三回裝) 저고리

4.3. 삼작(三作) 노리개

한복저고리의 겉고름이나 안고름이나 또는 치마허리에 착용하는 여성 장신구(裝身具)의 하나로 매우 화려하고 그 모양도 매우 다양하고 섬세하다. 게다가 우리 고유 의상의 단조로움에 강조를 줌으로써 의상 전체와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그 아름다움을 한층 더 강조가 된다. 노리개에 주로 사용되는 색은 보통 홍(紅), 남(藍), 황(黃)의 삼색(三色)으로 비롯하여 분홍, 자주, 보라, 옥색 등의 12색에 이르며 흔히 삼작(三作)노리개로 불리는 이유는 이처럼 삼색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색상과 고운 빛깔의 다회로 매듭을 맺고 술을 드리운 노리개 세 점을 한 벌로 찼기 때문이다.

그림 4 삼작(三作)노리개

4.4. 사찰(寺刹) 삼문(三門)

그림 5 범어사 일주문

사찰(寺刹)의 본당 앞에 있는 다락문, 공문(空門) · 무상문(無相門) · 무작문(無作門) 등의 해탈문(解脫門)을 비겨서 삼문(三門)이라고 부른다.

4.5. 삼족오(三足烏)

삼족오란 간단히 말해서 석 삼(三), 발 족(足), 까마귀 오(烏)자로 이루어져 있고 글자 뜻 그대로 세 다리를 가진 까마귀란 뜻이다.

수 '3'과 태양신을 의미하는 까마귀가 합쳐진 삼족오(三足烏)는 고대 사회의 태양관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 서구 사상에 알게 모르게 편중(偏重)된 우리의 의식은 까마귀하면 불길(不吉)한 징조(徵兆)로 여기고 있지만 먼 옛날 우리의 조상님들은 까마귀를 하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로 신성하게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의 왕을 상징하는 부장품들 중에도 삼족오(三足烏) 문양이 들어간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 데 이것은 삼족오(三足烏)가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족오의 다리 중 두 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는 남성의 성기(性器)를 상징한다.

앞에서 삼족오가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했는데 태양(太陽)이란 양(陽)의 상징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말하면 남성, 그 중에서도 남성의 성기를 뜻하므로 삼족오(三足烏)는 번영(繁榮)과 풍요(豊饒)의 상징이 된다.

그림 6 삼족오(三足烏)

4.6. 솥

삼(三)은 솥 정(鼎)자를 표현한 것이다. 정(鼎)이란 중국 고대의 국가를 상징한 보기(보배로운 그릇)이다. 이것은 다소 변형되어 불전(佛前)에 향불을 담아 올리는 그릇으로도 이용 되었는데 3개의 다리가 달려 있다. 만일 다리가 네 개이면 지면이 평탄하지 못할 경우에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없으나 3개이므로 어떠한 요철 바닥에도 끄떡없이 튼튼하게 버틸 수 있다. 또한 일반 가정의 부뚜막에 걸린 3개의 솥 중에서 가운데 솥은 밥을 짓는 가장 중요한 솥으로 신령(神靈)에게 제물(祭物)을 바치는 제기(祭器) 구실을 하는 소댕의 역할을 했으며 언제나 맏며느리가 맡았다.

그림 7 청동 솥

4.7. 삼태극(三太極)

그림 8 삼태극(三太極)

옛날 사람들은 하늘과 땅, 사람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이 세계가 완성(完成)되고 살아 움직이게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하늘을 뜻하는 천(天), 땅을 뜻하는 지(地), 사람을 뜻하는 인(人)으로 구성된 삼재(三才)를 기본으로 하여 완벽한 조화(調和)와 화합(和合)을 상징하는 것이 삼태극이다.

4.8. 솟대

솟대의 어원은 동사 '솟다' 의 어간의 '솟-'에 간주를 뜻하는 명사 '대'가 합성이 되어 '솟은 대'라는 뜻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우리 민족 신앙(信仰)의 하나로 솟대 위에 앉아 있는 세마리의 오리가 하늘과 땅의 매개자(媒介者)로서 마을의 안녕(安寧)과 풍요(豊饒)를 빌어준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선사시대부터 보통 장대, 기둥, 당수 나무와 같은 것을 사용해 하늘에 대한 인간의 경외심(敬畏心), 새에 대한 인간의 관심, '3'이라는 길수(吉數)의 의미가 합쳐져 나타난 결과이다.

그림 9 솟대

4.9. 삼지창

삼지창은 옛날에 창을 가지고 겨루는 무예 당파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명 당파창이라고도 한다. 장군님과 신장님들이 사용하는 창으로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자 사신을 세울 때 사용한다. 또 경관만신과 상산막둥이가 사냥을 나갈 때도 청룡도(靑龍刀), 일월도(日月刀), 그리고 언월도(偃月刀)와 함께 중요한 사냥무기로 사용되었다.

그림 10 삼지창

4.10. 부작(符作), 부적(符籍)

부작(符作)이란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상징물(象徵物) 혹은 그 증표(證票)라는 의미이다. 원래 부작은 의미가 부여된 자연물에서 시작했는데 후에는 신(神)을 불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목적물(目的物)로 제작이 되었다.

제주도 한라산의 산방굴사 아래의 붙임바위나 서울 세검정에 있는 붙임

바위 등의 오목한 부분에 돌맹이를 붙였을 때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그 날 재수가 있고 득남하는 등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같이 하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부합되면 신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뜻에서 부작이라는 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눈박이 세 마리 물고기 부작에서는 눈병치료와 소원성취를 기원이 담겨져 있다.

도끼 부작의 경우 도끼 모형 3개를 끈에 꿰어 주머니에 넣어서 허리에 차면 삼정승에 오를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도끼는 무력(권력)의 상징이었는데 민속에서 훌륭한 아들을 얻기 위한 태교(胎敎)의 방편으로 쓰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불임녀(不姙女)가 도끼 부작을 지니면 사기(邪氣)를 쫓아 내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신하에게 하사한 기록도 있다.[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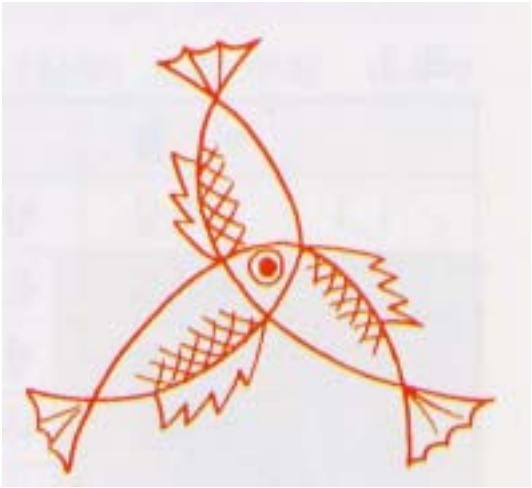

그림 11 한눈박이 세 마리 물고기 부적(符籍)

20) 韓國文化象徵辭典編輯委員會(1992). 韓國文化 상징사전. 동아출판사. p362.

5. 현대 미술에서의 숫자 3

5.1. 삼원색(三原色)의 바탕을 둔 신조형주의(新造形主義)

몬드리안은 그의 글 『등가적 조형의 일반 원리』에서 '신조형주의'는 회화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형(型)으로 태어나고 회화에 있어서 조형의 원리는 확실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명백한 것이 되었으며 이 조형적(造形的)인 것은 더욱더 완전(完全)한 것이 된다고 했다. 신조형주의의 기본은 입체파(立體派)이다. 그것은 추상적으로 현실적인 회화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추상적인 것은 조형적인 현실성에 의해 표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회화에 대한 신조형주의 특유의 본질(本質)이 있다.

채색된 구형면에 대한 구성은 더욱 깊은 현실성(現實性)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관계를 조형적으로 표현하는데 따라 도달되는 것이며 자연이 표출되는데 따라서는 아니다. 모든 회화가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불명료한 형식으로 밖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그것은 실현을 하고 있다. 채색된 평면은 색채의 가치에 따라서 평면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도 조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균형' 관계뿐이며 '무엇인가'의 형태를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신조형주의(新造形主義)는 그 관계를 미적으로 균형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따라 새로운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신조형주의의 장래는 엄밀하게 말해서 회화에 대한 그 실현이며 건축에 대한 색채조형에 의존하고 있다.

위와 같이 몬드리안 자신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신조형주의(新造形主義)는 단지 회화에의 실현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신조형주의의 조형 원리는 가장 보편적인 것과 현상의 가장 본질적인 면을 현실적으로 조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신조형주의가 어떻게 대상을 표현하는 조형원리인지,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는 그 주창자인 몬드리안의 작품에 대해 살펴보면서 느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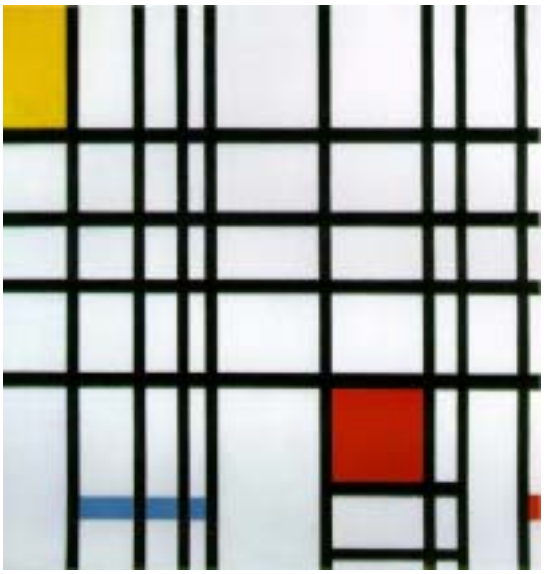

그림 12 몬드리안.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몬드리안의 대표적 작품이라 일컬어지는 작품들을 여러 개 한꺼번에 본다면 처음 느껴지는 것은 '전부 똑같다'라는 동일한 느낌일 것이다. 백지 위에 검은 선 몇 개 그리고 몇 개의 칸에 빨강, 노랑, 파랑 색 등의 삼원색(三原色)을 칠해놓고 그것의 변화만 조금씩 주어진 것이 각각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각각의 흰색면조차도 각각 다른 방향으로 칠해져 있으며 검은 선의 굵기가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을 안다면 오히려 놀라고 경탄하게 될 것이다.

몬드리안은 그의 저서 『새로운 조형』에서 '회화에 있어서 위치와 직선의 2원성에 의한 조형표현(造形表現)이 가장 순수한 것으로서 새로운 조형은 현재화된 색채를 채용한다.' 라고 말한 적 있으며 몬드리안은 '순수한 실재의 표현은 오직 순수한 조형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이 순수조형이란 그것의 본질적 표현에 있어서 '주관적인 감정이나 관념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1]

21) Piet Mondrian(1995). 새로운 조형. 도서출판 과학기술.

몬드리안의 주장에 의하면 '오랜 시일에 걸쳐나는 형태와 자연색채의 특수성은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를 환기시키며 극한적 감정의 상태는 순수실재를 모호하게 함'이고 '자연형태의 외관은 변하나 실재는 불변'이고 그가 말하는 실재란 바로 극도로 추상화된 형태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직선들과 색들은 실제로 어떤 형태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까지 추상화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데 몬드리안의 조형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상화의 단계는 그가 나무를 그린 그림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나무의 형상이 서서히 추상화되어 수직과 수평선으로만 표현되는 단계 - 그것이 몬드리안이 추구하는 실제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신조형주의(新造形主義)가 건축(建築)의 영역에까지 확대되어 실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신조형주의 혹은 몬드리안 자신의 조형양식의 특성에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었으며 몬드리안이 뜻한 바는 신조형주의(新造形主義)는 기계학적 추상에 기초를 둔 미(美)의 표현 수단이었으며 자연으로부터 탈피하고 인간의 정신 속에서 영감을 찾는 순수(純粹) 조형주의의 이론이었으며 이러한 원리 이른바 수직·수평적 리듬의 결과였다.

'수직 수평적 리듬의 결과' 라는 것은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었던 부분이다. 추상적 리얼리티의 시각은 현대인의 시각의 핵심과도 유사하며 기술적인 환경 형성에 영향을 받은 현대인의 시각뿐만 아니라 기술적 환경이 생활을 지배하기 시작한 당시의 건축가들의 시각은 다분히 몬드리안 적인 시각과 유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시각의 유사성(類似性)이 신조형주의(新造形主義)가 건축 분야에까지 폭 넓게 응용(應用)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수직 수평적 리듬의 결과'는 몬드리안의 회화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몬드리안의 작품은 평면상에서 직각으로 교차하는 수평과 수직의 직선이며 이것에 의해 구별된 장방형의 단순하고 동일한 원색의 면과 색 혹은 이러한 선과 면색으로 구성된 화면이 적재되어 명쾌한 인상을 주는 대칭을 어겨 불규칙한 구성의 긴장을 머금은 동적 균형을 유지한다. 그런데 이러한 양식은 '본래부터 - 전통적 미학에서 말하는 「형식미」의 법

칙에 의해 - 밖으로부터 규정된 것이 아니고 맥동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안에서 생성한 것이다.' 라고 몬드리안은 말했다.

몬드리안은 질서 속에 위치한 보편적인 진리(眞理)를 추구하기 위해 개별적 표현을 부정하고 가장 기본적인 선과 선의 관계 속에서 조형적 표현을 한정시켰다. 수직·수평의 직선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요소(要素)였고 삼원색(三原色)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재현적 성질의 것이었다. 또한 개별적 형태는 직선 속에서 환원되며 삼원색에서 비롯된다. 몬드리안은 비례의 대비와 색의 대비가 그의 회화적 기조(基調)이다. 방형, 원 그리고 삼각형이라는 세 개의 형(刑) 가운데서 그는 화면을 직선으로 세분하며 그 결과 살아오는 면적의 양적인 비례는 독자들의 생명을 갖게 한다.

이런 한 내용은 그의 작품 「Composition with red, yellow and blue」이라든가, 혹은 「Rhythm of Black Lines」같은 작품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대상이 있는 것을 그와 같은 형태로 환원하여, 극도로 추상화하여 그린 작품으로는 몬드리안이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뉴욕 시가지를 보고 그린 그림인 「Broadway Boogie Woogie」가 있다.

몬드리안의 화풍(畵風)과 조형 원리는 그의 작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의 화실은 가구는 수수하고 별로 놓여있는 것이 없지만 너무도 단정하였다. 몬드리안은 벽과 가구들을 「슈틸」의 원리에 따라 칠을 하였다. 벽은 수직과 수평으로 장식했으며, 바탕은 순수한 빨강, 노랑, 검정색으로 둘러쌌고 마루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그림 13 몬드리안. Broadway Boogie Woogie.

부엌의 식탁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빨강 서랍이 달려있었다. 이젤 위에 놓여있는 그림과 다른 캔버스들은 벽의 패턴과 어울리게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이에 비추어 몬드리안은 신조형주의(新造形主義)를 직품의 조형원리 뿐만 아니라 생활원리(生活原理)와 생활양식(生活様式)으로까지 확대해서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물론 몬드리안이 신조형주의(新造形主義)를 생활양식(生活様式)으로까지 확대해서 적용한다는 뜻에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의 생활이 자연적인 사물로부터 탈피하여 기술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생활환경 속에서 신조형주의가 상당 부분 반영(反影)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임에 틀림없다.

결론적으로 신조형주의(新造形主義)는 삶의 균형 혹은 어떤 것이라도 균형을 이루고 본질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基本的) 이념(理念)이라고 볼 수 있다.

5.2. 삼무(三無)정신이 스며 있는 제주 미술(濟州 美術)

옛날부터 제주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말로 삼다(三多)와 삼무(三無)가 있었는데 삼다(三多)는 바람, 여자, 돌이 많다고 해서 불려진 말이고 삼무(三無)는 대문, 도둑, 거지가 없다고 생긴 말이다.

삼무(三無)를 살펴보면 제주도민의 정직(正直), 순박(淳朴), 검소(儉素)함을 말해주는 도민성의 단적인 표현이라고 느껴질 만하다. 섬이라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처지이어서 나쁜 일을 할 수 없는 풍토가 되기도 하였고 빈부(貧富)의 격차가 크지 않아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다는데서 연유(緣由)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최근에는 육지로부터의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타지 사람들에 의해 제주도민의 특징적인 면들이 점차 사라졌다고 말한다. 세상이 변하듯 제주의 환경도 그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도 변하게 마련이듯이 많은 것은 줄어들고 없는 것은 생겨난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삼다(三多)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석다(石多), 풍다(風多), 여다(女多)라는 말이다. 제주도민들은 먼 옛날부터 땅을 갈아 씨를 뿌리기 비롯하면서부터 이 많은 돌의 처리에 땀을 흘려왔다. 넓은 바다위에 위치한 섬으로 계절풍의 통과 지역이기에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제주에는 남성과 여성이 다른 지역과 같이 통계적으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면서도 여성이 많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제주를 찾은 외지 사람들의 눈에는 제주의 바람 많은 변덕스런 날씨와 시꺼먼 돌과 거리에서 자주 눈에 띄는 여자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한국의 남단 최대면적인 섬 제주도는 한반도(韓半島)와의 오랜 고립으로 인하여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文化), 언어(言語)와 풍속(風俗) 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제주의 독특한 문화는 미술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삼무정신(三無精神)이 스며있는 미술로 발전을 하게 된다.

제주의 독특한 환경에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조형문화가 발전하기도 하였다. 대다수의 조형물들은 장식성보다는 실용성(實用性)과 서민적인 소박미(疎薄美)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형태나 색채에 있어서 강렬한 원색의 사용보다는 탁하고 소박한 취미가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술이 발전하는 곳은 대개 농업 혹은 상업의 중심지이거나 오랜 기간 안정된 절대왕권이 존속했던 곳 혹은 귀족문화(貴族文化)가 발달했던 곳이었다. 유럽의 경우 강력한 교권과 왕권이 오랫동안 존속되면서 미술도 발달하게 되고 귀족적 취미의 변천에 따라 양식의 변천도 가능했다. 반면 제주의 경우 비록 거대하거나 찬란한 조형물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소박하고 규모가 작은 조형물들을 통해 그 이면에 내재한 제주인(濟州人)들의 평등정신(平等精神)이나 소박미, 서민적 취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형 미술에서도 여전히 제주의 정신적 문화유산인 '삼무정신(三無精神)'이 스며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의 조형문화에 있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유의 특징은 역시 이 삼무정신을 찾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된다.[22]

그림 14 강부언. 삼무일기 1. 목판에 수묵채색. 1999.

제주 화가 강부언의 작품을 보면 해송(海松)등이 자주 등장을 한다. 화산지역 제주도의 돌밭에 뿌리를 내려 대양(大洋)으로부터 밀려오는 거친 바람을 맞이하는 해송(海松)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해송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접점에 서있다. 영겁의 세월 속에서 천기(天氣)를 받아드려 현무암의 대지 안에 차곡차곡 채워놓는다. 솔잎 사이로 새어나오는 쉰 소리는 비물질 에너지를 응축시키려는 해송들의 노래이며 껍질아래 흐르는 끈끈한 수액은 바람이 남긴 항체이며 해송은 다시 영겁을 지탱하기 위한 힘을 그것으로부터 취한다.

---

22) 제주문화예술재단. The Magazine of Culture & Art Foundation. 제 2호. p 44-45.

그림 15 강부언. 삼무일기 2. 목판에 수묵채색. 1999.

강부언의 해송그림은 상징적 내용을 품고 있다. 작가는 해송을 통해 자연에 대응하며 살아온 섬사람들의 숨결들을 표상할 것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어부들과 함께 세월을 같이 해온 해송은 그 자체에 인간의 형상을 담고 있다. 해송들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등으로 업고 뭍을 향해 서있다. 그것들의 형상은 바다를 향한 노스텔지어가 아니라 대지의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해송들의 의인화를 통해 작가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의 근원을 연결지우기 위한 가능성을 자신의 작업에서 찾아 가고 있다.

강부언의 해송(海松)을 등장시키는 무대는 자율적이면서 인위적이다. 다양한 목판들을 화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고가구나 일상도구 그리고 마루판 등이 그것이다. 그가 주변에서 찾아낸 목판의 대부분은 오랜 기간의 숙성과정을 거치며 자리를 잡은 나이테들이 자연스럽게 인각되어 있다.

강부언이 나무판을 화면으로 선택하게 된 것은 나무표면이 스스로 만들어 낸 이미지와 목판면이 자아내는 발묵의 효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였다고 했다. 자연이 자율적으로 그린 풍경과 수작업을 거치면서 형성된 이미지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이중적으로 연출하기 위한 무대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發揮)하고 있다.

강부언이 채택하는 연출기법은 절제되어 있으며 또한 보조적이기도 하다. 작가의 행위는 자연이 그려낸 풍경을 인식 대상으로 부상시키는데 힘

이 모아져 있다. 나무의 표면에 새겨진 나이테는 바람이 이는 연못이나 바다가 되기도 하고 넓은 백사장에 밀려드는 조용한 물결이 되기도 한다. 작가는 자연이 그려낸 풍경을 발견하고 그 위에 적절하게 소나무를 배치시킴으로써 매체와 주제 사이의 상호교신을 유도한다. 그러나 강부언의 작품의 성패는 작가의 손작업에 달려 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발견된 오브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표현의 과정에서 익명적 태도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각가가 돌에서 인간의 형상을 깎아내듯이 강부언은 나무판 위에 나무 이미지를 그려나간다. 새삼 동양화의 정신성이랄까 함축적인 미의식을 염두 해두는 제스쳐 같다. 그와 같은 '전통'을 새로운 매체 위에 연출해 보려는 의도가 보인다. 현판 위에 혹은 도마나 대문짝 위에 그려진 그림들은 그러니까 강부언의 필연적인 지금의 선택인 셈이다.[23]

5.3. 기업이미지로 표현된 숫자 3

5.3.1. CJ (제일제당)

숫자 '3'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업 CI는 손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데 기존 업체의 기업 이미지로 새로운 영역의 사업 확장 등으로 기업 이미지와 CI의 한계에 부딪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지도가 높은 기업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의 확장의 목적으로 기업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영상 당연한 결과이다.

제일제당의 경우는 백설표®라는 국내 제일의 설탕 생산 기업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생존 전략상 기존 생산하던 단품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다른 분야의 확장과 고(高) 부가가치(附加價値)사업으로의 사업전환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경영전략(經營戰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기존의 기업이미지를 탈피하는 것

23) 인터넷 http://jeju.artist-info.co.kr 제주미술포럼

은 당연한 것이고 그 중 제일제당의 경우는 생명공학, 영화산업과 같은 문화사업(文化事業)으로의 진출 등으로 인해 기존의 백설표®, 제일제당이라는 기업 이미지는 인지도면에서는 우월성이 있지만 기존 사람들의 고정된 의미 때문에 변화가 필요 했을 것이다. 이에 최근 새로운 심볼을 도입한 제일제당의 기업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CJ red, CJ yellow, CJ blue 의 색상은 CJ가 소비자의 생활 속에 담고 싶어하는 건강, 즐거움, 편리라는 세 가지 가치를 상징한다. 여기에서 CJ red와 CJ blue는 기존 심볼 색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기존 사업의 발전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CJ yellow는 새롭게 커나가는 신(新) 사업군(事業郡)을 의미한다.[24]

화창한 봄날 만개하는 꽃처럼 세계 시장과 고객을 향해 새롭게 피어나는 CJ의 모습을 담고 있어 이를 'Blossoming CJ'로 명명하였다.

새로운 심볼은 크게 CJ라는 서체와 각각 세 가지 색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세 형상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왼쪽의 CJ서체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타 기업들의 서체와는 달리 가늘고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경쾌한 느낌을 준다. 이는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지양(止揚)하고 보다 부드럽고 세련된, 그래서 고객에게 편안(便安)함을 느끼게 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그림 16 (주) C J 로고

24) 인터넷 http://cjlife.co.kr / (주) CJ.

서체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세 가지 색상의 형상은 원이나 타원 등의 특정한 형태로 규정하기 힘든 모습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Organic, 즉 자연의 형태로서 매우 역동적이고 피어나는 꽃잎이 될 수도 있고 움직이는 생명체가 될 수도 있으며, 더 작게는 세포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으로 CJ가 자연을 닮은 자연(自然) 친화적(親和的)인 그룹이며, 항상 역동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고객에게 언제나 새롭고 친근(親近)하게 다가가는 기업이라는 것을 표현한다.

5.3.2. 삼보(三寶) 컴퓨터(TG)

불교의 삼보(三寶)와 이름이 같은 기업인 삼보 컴퓨터는 컴퓨터 불모지인 우리나라의 컴퓨터 산업의 초기기업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보(三寶)는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이지만 삼보 컴퓨터의 삼보는 신뢰(信賴), 첨단(尖端), 유연(柔軟)이라는 기업 이념을 담고 있다.

삼보 컴퓨터의 로고는 간결한 조형 Unit와 색깔 Code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첨단 기술력과 크리에티브가 살아 숨쉬는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삼보컴퓨터 로고의 컨셉은 인류가 꿈꾸어온 아름답고 풍요로운 정보화 사회의 근간인 디지털 유전자(Digital DNA)를 상징한다.

전문성과 확고한 신념을 상징하는 블랙코드(black code)와 미래를 이끄는 첨단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실버코드(silver code)가 기본으로 조합되며 감성과 진취적 행동력의 표출인 컬러코드(color code)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용자의 개성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하면서 항상 흥미와 변화를 추구하는 TG라는 것이다.

TG는 TriGem의 메인 이니셜로 [신뢰(信賴), 첨단(尖端), 유연(柔軟)]을 상징하며 Global Standard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난 TG 삼보컴퓨터의 새로운 이름이다.

- Color Code : 시간과 장소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고객의 개성과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진취적 행동력을 상징

- Black Code : 첨단 정보기기 전문 기업으로서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상징

- Silver Code : 미래를 이끄는 독보적인 첨단 기술력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상징

그림 17 삼보컴퓨터 로고

TG Dream Code는 서로 다른 성격과 재능을 가진 코드들이 재조합되면서 사용자들의 개성과 용도를 존중하며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액티브 할수록 컬러코드는 더욱 화려하게 변화하면서 항상 흥미와 변화를 추구하는 살아 숨쉬는 TG, 미래지향적 TG, 고객 지향적인 TG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5.3.3. 삼양식품(三養食品)

우리나라의 라면 제조업체의 대표주자인 삼양식품도 그 상호에 천(天)·지(地)·인(人)을 의미하는 삼(三)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양(三養)에서 삼(三)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우주의 생성 근원인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천·지·인을 나타내며 양(養)은 풍부한 영양(營養)을 공급하여 성장을 돕는 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영장인 인간을 살찌우기 위해 영양이 풍부한 식품만을 가공 생산한다는 깊은 철

학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늘과 땅에서 얻어 낸 영양가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을 생산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식품 공업의 사명을 함축성 있게 상호로 제정한 것이다. 이는 정직(正直)과 신용(信用)으로 소비자를 위한 기업이념을 구현시켜 미래 식품을 개발하고 기업의 진실한 성장추구로서 식생활문화와 새로운 인간세계 창조를 이루어 국가사회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소명의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림 18 삼양식품 로고

로고의 의미는 무성한 숲은 왕성(旺盛)하게 성장하는 사세 신장을 의미하며 싱싱한 거목은 의연(義捐)하고 굳건한 기업이미지이며 '품질보증'은 삼양(三養)의 이념이다. 군청색의 세 갈래 기둥은 정직과 신용(信用)을 의미하며 녹색의 무성한 잎은 끊임없이 개발, 전진하는 창의(創意)와 노력(努力)을 의미한다.

따라서 삼양식품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최신시설과 각종 원·부자제의 신선도, 영양 등의 양질의 원료와 삼양인의 정신과 혼이 담겨져 있으며 아울러 국제수준의 품질관리로서 소비자에게 '완전식품'을 판매한다는 신뢰의 표상으로 로고하단부에 '품질보증'을 통해 경영기법에서도 앞서가는 선진기업임을 표현한다.[25]

25) 인터넷 http://www.samyangfood.co.kr (주)삼양식품.

6. 작품 제작 및 표현 연구

6.1. 작품 디자인의 컨셉

앞서 살펴 본대로 숫자는 단순히 수량(數量)만을 의미하는 수학적(數學的)인 의미 외에 사회, 문화, 종교적인 관념(觀念)들이 포함이 된 상징성(象徵性)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작품의 구상 또한 과거 우리 민족이 품고 있었던 삼(三)에 대한 의미를 현대화(現代化)시키는 과정을 반영(反影)하도록 노력하였다.

‘3’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옛날부터 행운(幸運)과 신성(神聖)함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1’은 하나의 수량을 말하지만 동시에 사물의 전체(全體)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태극(太極)을 나타내는 수이기도 하다. 음양(陰陽)의 이치를 보면 1은 아무수와도 섞이지 않는 순양(純陽)의 수이며 모든 사물이 생겨난다는 탄생(誕生)의 뜻이 담겨져 있다.

‘2’는 하나가 아닌 최초의 단위(單位)이자 최초의 음수(陰數)이며 순음(純陰)의 수이다. 음과 양, 하늘과 땅, 남과 여 등과 같이 상반된 두 가지 요소가 하나가 된다는 대립(對立)과 화합(和合)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은 바로 이런 ‘1’과 ‘2’가 결합(結合)하여 생겨난 수이다. 즉 음양(陰陽)의 조화(調和)가 비로소 완벽하게 이루어진 수가 바로 3이다. 즉 완성(完成), 안정(安定), 조화(調和), 변화(變化)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완성(完成)이라는 의미는 짝수처럼 둘로 갈라지지 않고 원수인 1의 신성(神聖)함을 파괴하지 않은 채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전체로서는 완성된 하나라는 강력한 상징을 띠고 있다. 이런 상징성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승화 시키는 데 노력을 하였고 과거의 풍습(風習), 종교(宗敎), 관습(慣習), 미술(美術) 등에서 스며들어 있는 삼(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하여 본다.

6.2. 작품 설명

6.2.1. 작품 1 : 삼족오(三足烏)

삼족오라는 말은 석 삼(三), 발 족(足), 까마귀 오(烏)자로 이루어져 있다. 글자 뜻 그대로 세 다리를 가진 까마귀란 뜻의 말이다. 숫자 '3'과 태양신을 의미하는 까마귀가 합쳐진 삼족오(三足烏)는 고대 사회의 태양관(太陽觀)을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실례에 해당이 된다.

삼족오(三足烏)의 세 다리 중 두 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한 다리는 남성(男性)의 성기(性器)를 상징한다고 한다. 앞에서 삼족오가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했는데 태양(太陽)이란 양(陽)의 상징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말하면 남성, 그 중에서도 남성의 성기(性器)를 뜻하므로 삼족오(三足烏)는 번영(繁榮)과 풍요(豊饒), 그리고 생산(生産)의 상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저자는 이러한 삼족오(三足烏)에 얽혀 있는 단순한 수학적인 숫자 3이 아닌 삼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삼족오(三足烏)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분해(分解) 분석(分析)하여 보고 기본적으로 내제되어 있는 태양관을 의미하는 샤머니즘적인 고대의 신앙적인 성향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표현으로 발현하도록 노력하였다. 색채 사용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원초적인 색상을 선택하였으며 숫자 3이 아닌 삼(三)이라는 신앙적인 상징성(象徵性)을 나타내도록 노력하였다. 전체적으로 부적 느낌의 동심원형으로 3이라는 글자 및 숫자를 표현하였고 그 위에 삼족오의 느낌을 화선지에 먹으로 표현한 후 다시 스캔의 작업을 거쳐 합성하였다. 따라서 고대 삼족오의 신비한 태양관의 의미를 적, 청의 대비로 강하게 표현해 보았고 신비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삼족오의 머리부분을 강조 뒷부분을 생략하는 기법을 활용하였다. 시간의 지남을 표현하기 위해 먹점을 이용하여 3이라는 숫자가 과거부터 우리민족과 함께 하였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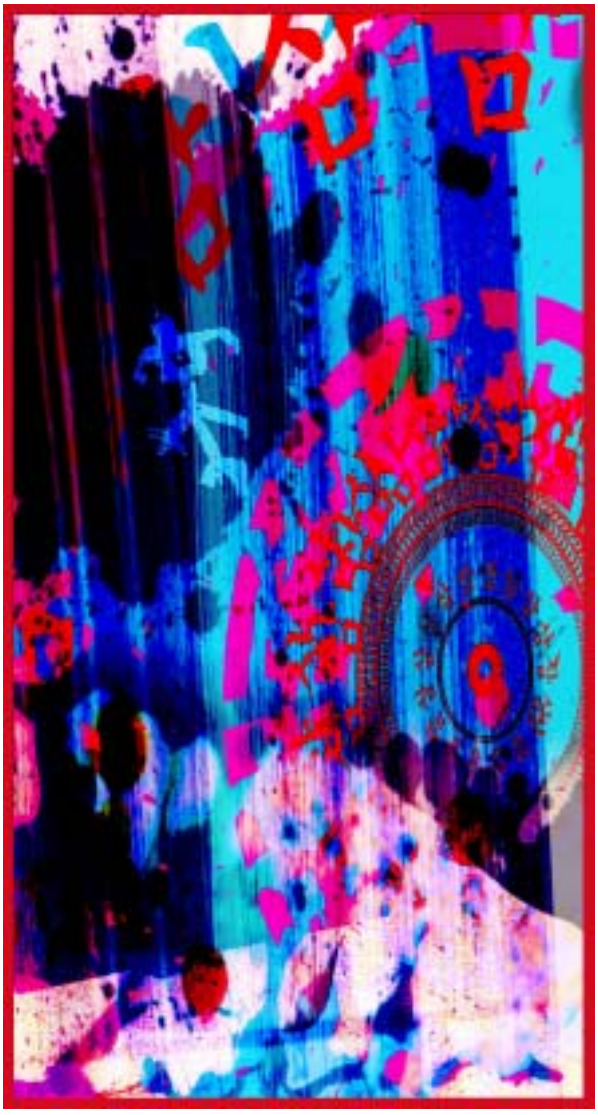

그림 19　작품 1 : 삼족오(三足烏)

6.2.2. 작품 2 : 솟대

솟대라는 말은 동사 '솟다' 의 어간의 '솟-'에 간주를 뜻하는 명사 '대'가 합성이 되어 '솟은 대'라는 뜻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우리 민족 신앙(信仰)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솟대는 위에 앉아 있는 세 마리의 오리가 하늘과 땅의 매개자(媒介者)로서 마을의 안녕(安寧)과 풍요(豊饒)를 빌어준다고 믿어 왔다. 이것은 선사시대부터 보통 장대, 기둥, 당수 나무와 같은 것을 사용해 하늘에 대한 인간의 경외심(敬畏心), 새에 대한 인간의 관심, '3'이라는 길수(吉數)의 의미가 합쳐져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솟대에 숨어 있는 숫자 '3'이라는 전통적인 길수의 의미와 하늘과 땅의 매개자로의 새라는 신앙적인 존재가 만들어낸 솟대라는 것을 그 전통적인 의미를 다시금 바라 볼 수 있는 디자인을 시도 하여 보았다.

작품 전체적으로 무속적인 느낌을 표현하고자 동심원 3을 표현하였고 재앙을 물리치는 길한 색인 적색을 이용하여 솟대를 무속적으로 표현하였다. 시간의 흐름을 전체 화면에는 먹선과 먹점의 느낌으로 표현하였고 녹, 적, 흑색을 주색으로 동양적인 느낌을 주도록 표현하였다.

그림 20　작품 2 : 솟대

6.2.3. 작품 3 : 화투(花鬪)

전통적인 놀이라고 할 수 있는 화투는 서양의 카트와 유사한 대중적인 놀이이다. 물론 여러 가지 도박의 의미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하지만 명절이나 가족들이 모여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일거리로 부담 없이 세 명만 모이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놀이가 바로 화투이다.

한국의 화투(花鬪)라는 명칭은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조선에서 번성했던 수투(數鬪)와 깊은 관련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수와 그림으로 구성된 수투와 구별하여 꽃 그림이 그려진 화투 즉 화투전(花鬪錢)의 뜻으로 조선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일제 시대에 들여왔다면 다른 놀이 용어와 마찬가지로 일본어 명칭이 사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렇게 기존의 토착놀이의 명칭과 교섭을 이루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화투라는 명칭은 일제시대 보다 빠른 조선말에 부산을 중심으로 활약하던 상인들에 의해 전해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인다.

조선의 수투의 기원에 대해서는 중국설과 자생설이 있는데 확실히 증명된 것은 아직 없으며 자생설을 따를 경우 임진란 이후 17세기에 일본과 통신사 사절단 교류가 재개된 것과 두 나라에 유사한 형태의 도박이 성한 것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화투를 이용하는 근래 놀이 방법은 고스톱이라는 놀이로 이는 세 명이 기본으로 하는 놀이로 3점이 승리의 기본 점수이다. 이러한 놀이 문화에서 삼이라는 민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화투에 나타난 그림들은 그 정확한 근원은 알 수 없으나 동양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이 화투의 그림 중에서 삼을 의미하는 벚꽃을 기본으로 화투에 사용이 되고 이는 원색적인 색상 등을 여과 없이 사용하여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전체적으로 동심원의 삼과 숫자 3을 통해 샤머니즘의 의미를 동일하게 나타내었고 한국의 비단이불의 나타났던 원시적 색상을 작품에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벚꽃의 이미지와 먹점을 뿌려놓은 듯 한 배치를 통해 동양적인 느낌을 한층 더 강화 시켰다.

그림 21　작품 3 : 화투(花鬪)

6.2.4. 작품 4 : 삼두일족응(三頭一足應)

부작(符作)이란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상징물(象徵物) 혹은 그 증표(證票)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원래 부작은 의미가 부여된 자연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후에는 신(神)을 불러 모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목적물(目的物)로 제작이 변화 되었다.

조선 후기에 삼재를 당하는 사람은 역동적인 삼두일족응(三頭一足應)이라는 부작을 만들어 부착을 했다. 자연 재해(災害)는 물론 가렴주구(苛斂誅求)로 시달리는 민중(民衆)에게 있어서는 세 개의 대가리를 가진 매는 강력한 힘의 열망 그 자체였다.

머리가 세 개인 매의 그림으로는 용(龍), 호(虎)와 더불어 매를 영공(領空)의 수호자로 상징되었다. 이 부작에서 세 개의 매부리는 삼재를 각각 쪼아 없앤다는 뜻에서 만들어졌으며 이런 의미로 삼두일족응 삼재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삼재를 막으려는 자연의 힘에 비하면 너무 나약한 인간이 뭔가 커다란 그리고 기댈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기원하려는 신앙적인 의미를 살려 보고 이전의 삼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삼두일족응의 부작 그림를 분석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색상이나 구성의 선택에 있어 부작이라는 신앙적인 의미의 강렬한 색상등도 과감한 투여도 시도 하였다.

부작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동심원 모양으로 숫자 3과 삼을 표현하였고 붉은 색과 먹점을 이용하여 매의 일러스트 그림을 더욱더 샤머니즘적인 느낌을 표현하였고 민간 신앙 속에서 부작의 영험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22　작품 4 : 삼두일족응(三頭一足應)

6.2.5. 작품 5 : 삼작(三作) 노리개

삼작(三作) 노리개는 한복저고리의 겉고름이나 안고름이나 또는 치마허리에 착용하는 여성용 장신구(裝身具)의 하나로 매우 화려하고 그 모양도 매우 다양하고 섬세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 의상의 단조로움에 강조를 해줌으로써 의상 전체와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그 아름다움을 한층 더 강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노리개에 주로 사용되는 색은 보통 홍(紅), 남(藍), 황(黃)의 기본 삼색(三色)으로 비롯하여 분홍, 자주, 보라, 옥색 등의 추가적으로 12색에 이른다.

흔히 삼작(三作)노리개로 불리는 이유는 이처럼 기본적으로 삼색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색상과 고운 빛깔의 다회로 매듭을 맺고 술을 드리운 노리개 세 점을 한 벌로 해서 차고 다녔기 때문이다.

앞서 저자가 연구하고 있는 삼에 의미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색상인 삼원색에 해당하는 홍, 남, 황의 기본 삼색으로 만들어진 삼작(三作) 노리개는 전통적인 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서 이러한 삼작(三作) 노리개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삼원색을 기본으로 민족적인 삼의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도록 노력하였고 노리개가 우리나라의 간결하고 단순한 색상의 저고리에 강조를 해주는 것과 같은 돋보이는 표현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예로부터 여성의 장신구 용품으로 대표되는 노리개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화면 전체에 노리개의 수술을 의미하는 강한 원색의 선을 이용하여 마치 노리개를 엮어가는 모양으로 현실적인 표현을 시도 하였고 그 위에 전통적인 노리개의 의미를 장식적인 색상으로 표현을 하였다.

그림 23　작품 5 : 삼작(三作) 노리개

6.2.6. 작품 6 : 외눈박이 삼물고기 부작

부작의 기원은 원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인류가 바위나 동굴에 해 달 짐승 새 사람 등 주술적인 암벽화를 그린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에는 처용의 얼굴을 그려서 대문에 붙여 역신을 쫓았다는 기록이 있다.

부작은 대개 종이로 만들지만 재료에 따라 돌, 나무, 청동, 바가지, 대나무 부작 등도 있으며 나무 부적 중에는 벼락을 맞은 복숭아나무나 대추나무 부작이 상서로운 힘을 갖는다고 믿고 있다. 이는 나무가 벼락을 맞을 때 번개신이 깃들여 잡귀가 달아난다는 생각 때문이다.

부작의 종류는 사용목적과 기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주력(呪力)으로써 좋은 것을 증가시켜 이(利)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부적이고, 다른 하나는 사(邪)나 액(厄)을 물리침으로써 소원을 이루는 부적이다. 전자에는 칠성부, 소망성취부, 초재부(招財符), 재수대길부, 대초관직부, 합격부, 생자부(生子符), 가택편안부, 만사대길부 등이 있다. 후자에는 재앙을 예방하려는 삼재(三災)예방부, 부정을 막는 부적이 있고 악귀를 물리치는 부적으로 귀불침부(鬼不侵符), 벽사부(辟邪符), 구마제사부(驅魔除邪符), 축사부(逐邪符)가 있으며, 벌레와 짐승을 막는 비수불침부, 야수불침부도 있다.

이외에 살을 막아주는 상문부(喪門符), 도살부(度煞符) 등이 있고 가장 흔한 것으로 병을 물리치는 병부(病符)가 있다. 한눈박이 세 마리 물고기 부작에서는 눈병치료와 소원성취를 기원이 담겨져 있다.

저자는 눈병치료와 소원성취의 기원이 담겨져 있는 한눈박이 세 마리 물고기 부작을 이용하여 부작 제작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경면주사(鏡面朱砂)나 영사(靈砂)가 괴황지(槐黃紙)에 표현되는 양상을 방식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분해하여 표현하였다. 부작의 범상함을 표현하기 위해 원시적인 색상인 자(紫), 황(黃), 녹(綠)을 이용하였고 먹으로 외눈박이 물고기 부작을 그려 넣어 한국의 토속적인 신앙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빛바랜 먹점과 원형의 삼과 숫자 3의 글자를 이용하여 현대적으로 관점으로 부작을 재구성하였다.

그림 24 작품 6 : 외눈박이 삼물고기 부작

6.2.7. 작품 7 : 삼회장(三回裝) 저고리

삼회장(三回裝) 저고리는 깃 · 고름 · 곁막이 · 소매 끝동을 저고리의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처리한 저고리를 말하는 데 저고리에 선을 대는 것은 저고리의 단순함을 보완해 주면서 색감(色感)의 조화(造化)를 이루어 산뜻한 감각(感覺)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회장(回裝)의 색깔은 보통 자주색이나 남색을 대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색치마에 황색 삼회장(三回裝)저고리는 남색과 황색을 으뜸가는 색으로 여겨 이는 조선시대 부인의 예복으로서 경사스러운 날에 주로 착용하였다. 남치마의 풍부한 선과 황색 삼회장(三回裝)저고리는 품위(品位)를 느끼게 하며 장식용으로 노리개를 고름에 걸어 늘어뜨려 더욱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삼회장(三回裝) 저고리의 기본 색상들을 분석하여 보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스며 있는 삼(三)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이것을 전통적인 문양을 이용하고 전통적인 한복의 아름다운 곡선의 미(美)를 살려보고 삼회장에 묻어난 삼(三)의 의미를 표현하도록 노력하여 보았다. 또한 삼회장(三回裝) 저고리 옷자락에서 묻어나는 수많은 여성의 한과 애환을 담아내고자 옷감 직조 느낌의 질감을 사용하였고 녹, 적, 청의 삼색의 기본색을 이용하여 삼회장(三回裝) 저고리에서 표현이 되었던 표현 양식을 전수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25　작품 7 : 삼회장(三回裝) 저고리

6.2.8. 작품 8 : 비천선인상(飛天仙人像)

수미산 정상의 하늘에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지극한 즐거움을 즐기는 천인(天人) 이들을 불교 경전(經典)상 호법인도(護法引導)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중을 날아다닌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처가 설법하실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꽃을 뿌리거나 악기를 연주, 지물을 공양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비천인상은 천계의 세상에서 부처와 보살을 찬탄하고 있다. 삶과 죽음의 고통을 초월한 그 모습은 인간의 무한한 공상 속에서 자리 잡은 자유와 염원을 사람의 형상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천인의 유래는 인도 고대 신화의 건달바, 긴다라가 비천의 조상이다. 소나 말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하거나 사람의 머리에 새의 몸을 가지는 등 사람인지 짐승인지 일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인도 신화에서 바다와 구름을 관장하며 천상계의 악사로서 천상에서 스스로 향기를 발산하며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의 신으로 표현된다. 이 후 불교 성립과정에서 각각 팔부신중(八部神衆)으로 수용되어 부처를 모시며 기무음악을 연주하는 하늘의 가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비천인상의 형성에는 고대신앙, 도교사상, 불교사상등의 여러 배경이 담겨 있다. 태양이나 바람 등 천상의 대상에 염력(念力)이 있다고 믿는 고대신앙과 인위적인 법과 윤리에 제약을 거부하며 자유로움에 의한 조화를 중시하는 도교, 또한 평정된 마음가짐의 상태를 지향하는 불교의 성격들이 내재 되어 있다. 형성과정에서 기존 민중문화의 바탕이 반영된 비천인상은 불교적 장식을 통해 불로장생(不老長生)에 대한 염원과 날고 싶어하는 욕망이 복합적으로 표현이 되어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불교에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삼(三)의 개념은 이런 불교적인 미술에서도 그 성향을 볼 수 있는 데 하늘을 날면서 부처를 찬탄하는 모습을 재구성하는 시도를 했으며 불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삼존불(三尊佛)의 안정된 구도와 삼덕(三德)과 삼보(三寶)와 같은 불교의 교리를 함께 나타내도록 노력하여 보았다. 삼원을 이용하여 전통 신앙의 느낌을 강조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용된 색상도 과거 신당에서 불 수 있는 원시적이고 샤머니즘의 성향의 원색을 주로 사용하여 보았다.

그림 26　작품 8 : 비천선인상(飛天仙人像)

7. 맺는 말

고대(古代) 미술에서의 '3'의 의미를 찾아보면 신앙적(信仰的)인 의미가 많았음을 앞서 서술한 내용으로 알 수 있었다. 강서 삼묘, 삼회장(三回裝) 저고리, 삼작(三作)노리개, 삼문(三門), 삼족오(三足烏), 청동솥, 삼태극(三太極), 솟대, 삼지창 등으로 알 수 있듯이 안정적으로 음양(陰陽)의 더함으로 완성(完成), 안정(安定), 조화(調和), 변화(變化)를 상징하는 삼(三)이라는 의미는 자주 사용이 되어 왔다,

현대(現代) 미술에서는 색깔의 기본 삼원색(三原色)으로 표현을 시도하는 신조형주의(新造形主義)에서도 서양이지만 이런 동양적인 완성(完成), 안정(安定), 조화(調和)와 변화(變化)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숫자는 단순히 개수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의미 표현의 매체(媒體)인 말(word)이며, 마치 꽃말(language of flower)처럼 함축적(含蓄的)인 의미를 내포한 상징적인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에 대한 종교철학적(宗敎哲學的)인 상징적 해석은 만물의 근원(根源)을 수(數)로 보고 수에서 우주(宇宙)의 조화(調和)의 신비(神秘)를 찾으려 하였던 노력들도 알 수 있었고 우주의 조화가 수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수와 도덕(道德)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고 또한 성경에서도 숫자가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숫자가 보편적 우의 또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內包)하고 있는 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삼(三)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며 신비롭기 조차 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3은 성스러움, 완전함, 최상임, 창조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韓國), 불교(佛敎) 그리고 기타 상황에서 숫자 3이 갖는 핵심성(核心性)과 전체성(全體性), 삼(三)의 어의(語義)에서의 인간생명(人間生命)의 근원(根源) · 생식(生殖) · 생산(生産) · 신(神) · 신령(神靈)함, 숫자 '3'과 아침 · 개천(開天)은 서로 상통(相通)하는 의미(意味)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생명(生命) · 생산(生

産)의 근원신(根源神)이라는 무속적(巫俗的) 의미(意味)를 가지고 있는 삼(sam)이 숫자 '3'과 융합(融合)이 되었으며 우리민족의 전체성(全體性)이라는 개념(槪念)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숫자 '3'은 어느 숫자보다 안정(安定)적인 숫자로 인식이 되어 현대(現代)의 일상생활에서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미술이라는 작업이 일생 생활과 동 떨어진 작업이 아닌 관계로 실생활에 스며 있는 관습(慣習), 개념(槪念), 상징(象徵) 들이 그림이라는 작품으로 표현이 되는 것은 자명(自明)한 일일 것이다. 특히 현대에서는 많은 화가에 의한 표현되는 작품과 함께 여러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구성되고 표현되어 지고 있는 현대 디자인들도 이런 영향(影響)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민족은 단일민족(單一民族), 한민족(韓民族), 단군(檀君)의 자손(子孫)이라는 하나의 공동체(共同體)라는 의미 부여를 오랜 기간 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관념적(觀念的)인 공동적인 공동체 의식과 풍습, 그리고 동양적인 철학(哲學)이 묻어 있는 삼(三)에 대한 의미(意味)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이런 개념(槪念)들이 시대착오적(時代錯誤的)인 퇴물(退物)은 아니라고 판단(判斷)이 되며 향후 미술과 디자인에 있어도 안정적(安定的), 완성적(完成的)인 그리고 조화(調和)와 변화(變化)의 의미로서 지속적인 개발(開發)과 발전(發展)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단행본>

구미래(2000). 『한국인의 상징세계』. 서울 : 교보문고.

김영기(1998). 『한국 미의 이해』.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영기(2002). 『한국인의 정체성 탐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진섭(2001).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우리문화 이야기』. 서울 :초당.

김태곤(1997). 『韓國文化의 原本思考』. 서울 : 민속원.

배영기(1999). 『내가 모르는 우리 문화 125가지』. 서울 : 학문사.

우실하(1998). 『전통문화의 구성원리』. 서울 : 조합공동체 소나무.

정연종(1996). 『한글은 단군이 만들었다』. 서울 : 죠이정 인터네셔날.

정우기(1997). 『살려 쓸 우리말 4500』. 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주강현(2000). 『우리문화의 수수께끼1』. 서울 : 한겨레신문사.

중앙일보(1998). 『북한 문화 유적 답사기』. 서울 : 중앙일보사.

한국학백과사전 편집위원회(1972).『韓國學大百科事典』. 서울 : 乙酉文化社.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집위원회(1992). 『韓國文化상징사전』. 서울 : 동아출판사.

Piet Mondrian(1995). 『새로운 조형』. 서울 : 도서출판 과학기술.

<해외원서>

Cora Linn Daniels & C.M. Stevens, ed. 『Encyclopia of Superstition, Folklore and the Occult Sciences of the World』(Detroit: Gordon Press, 1971), p. 1637.

Douglas Brooks, 『Number and pattern in the Eighteenth Century Novel』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73), p. 4.

Gertrude Jobes, 『Dictionary of Mythology, Folklore and Symbols』 (New York : The Scarecrow Press, 1962) p. 1563.

J. C. Cooper,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London: Thames and Hudson, 1978), p. 113.
J. E. Cirlot, 『A Dictionary of Symbols』(New York : Philosophical Library, 1962), p. 226.

<국내논문 및 정기간행물>
고정석(1988). 『Macbeth의 상징 연구 - 숫자3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 영어영문학 34(1).
경희대 민속학연구소(1987). 『瑞山民俗誌 上』. 경희대 민속학연구소.
양리가(2000). 『숫자메세지의 진화에 관한 연구』. 서울디자인포럼학회 디자인 연구집 6(1).
이상언(1995). 『한국인의 수 개념 연구』. 한국민속학보 5호.
이상언(1983). 『한국 무(巫) 명칭(名稱)의 어의(語義)』 한국민속학 16호.
이은숙(2003). 『한국디자인의 형이상적 특성과 새로운 패러다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제주문화예술재단(1999). 『The Magazine of Culture & Art Foundation』 제 2호.

<국내사이트>
http://100.naver.com /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itbiz.co.kr / IT Business.
http://hangul.or.kr / 재단법인 한글재단.
http://www.sesistory.pe.kr/index2.html / 韓國의 歲時.
http://jeju.artist-info.co.kr 제주미술포럼.
http://www.trigem.co.kr / (주)삼보컴퓨터.
http://cjlife.co.kr / (주) CJ.
http://sanyangfood.co.kr / (주) 삼양식품.

ABSTRACT

Research on the visual expression with number 3 in Korea

- Korean expression applied with amulets -

PARK Sun-mi
Major in Information Design
Departmen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The numbers are not merely the expression of quantities but also the expression of symbolic qualities. The number is the word of expression for meaning and contains implicated meaning such as the language of flower. So we can easily find a lot of manners, custom, literatures, and art products associated with the meaning of the numbers.

The number 'three' contains the meaning of the hollies, perfection, supreme, and creation. So number three is found in many world religions, myths, folk tales, and common sayings. For example, we are considered as the winner if we take two wins of three game in scissors-rock-cloth wrapper, and in traditional wrestling game, the champion should wins two games of three games. So we can guess that the number three has been considered as important number in Korea for many years.

The Sam(3) has the meaning of the source of life, reproduction,

production, god, hollies and the morning. In Korea, the number three becomes one with the Sam. Therefor the number three has mathematical meaning of quantity and symbolic meaning, and it also has influenced to the art. We can find the examples - samhoeijang jacket, samjak pendent trinket, samjoko, samtakeuk, sotdae, etc.

In modern art, the three primary colors were modified to Neo-Plasticism by Mondrian and the idea of 'sammoo' has been expressed in jeju art. And many company have used corporation identity associated with S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nsideration of the Sam associated the past art, manners and custom, the Sam adapted in modern art and many other examples, and research for modern advance in design associated with the Sam.